



통우컬럼

넘어지는 이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1~12).

왜 사람이 넘어질까? 왜 주의 종들이 잘
가다가 넘어지고 삼천포로 빠질까? 나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안다. 성경을 보지 않
아서다. 아니,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읽기 때
문이다.

성경에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굴곡지고, 벼랑도 있고, 지뢰도 많은 이 세상을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잘 써놓으셨다. 왜? 너희는 제발 넘어지지 말라고. 제발 끝까지 잘 오라고.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사돈 남 말하듯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도를 들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김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1:23~25).

“다윗처럼 이성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아간처럼 욕심 부리다가 넘어진다 조심해라, 사울처럼 명예욕에 치우치면 넘어진다 조심해라, 여호수아처럼 잠시 방심하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넘어진다 조심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흔 된 부모가 일흔 된 자식에게도 차 조심하라고 당부하듯 우리 하나님은 부모 된 심정으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말에도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땀이 생긴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해가 될까.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전복되고,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공격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레일이요, 항로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상고하고 깨닫는 자가 되자.

예수님의 투자방법

지난 수요일에 배에 목사님은 예수님의 투
자방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셨다.

“투자란 던질 투(投), 재물 자(資), 곧 돈을 던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예수님의 투자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투자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가 이를 숨긴 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며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발견했는데 그

제 때 제 값어치를 받고 팔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투기꾼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남보다 정보에 눈과 귀를 열고 부단히 찾은 결과 아닙니까? 단지 그 중에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세금을 때먹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기에 지탄을 받긴 합니다만,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보에 눈이 어둡거나 게을러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조급해서, 남의 말에 혹해서 가치 없는 것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

익을 남긴 자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하
습니다. 곧 실력 있는 자에게 투자하란
말씀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사람, 이익을
남기는 땅, 이익을 남기는 기업에 투자
해야 합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선 안 됩니다. 꿈이 없는 자, 게으르고 나
태한 자에게 투자해선 안 됩니다. 국가
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미래
에 가치 있는 기업이나, 가치 있는 인재
나, 미래 가치가 있는 산업이나, 생명공
학, 우주공학, 의학, 약학 등 가치 있는 것
에 투자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



땅속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금, 은, 동이 있다는 겁니다. 철, 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상업지구, 주택단지로 개발된다는 겁니다. 고도제한이 풀리고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귀가 열려있는 자에게만 정보가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 통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잘못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거 찾아 쓰라 하십니다. 다 준비해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찾겠다는 일념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백신을 찾겠다고 하니 찾는 거 아닙니까? 투자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돈은 굴려야 늘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답도 많습니니다. 그리고는 찾아와서 ‘목사님~~~’ 해보야 넌들 어쩍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치 없는 것은 빨리 정리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만 이삭처럼 당년에 백배도 거둘 수 있는 겁니다(창26:12).

나는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여 지금은 백배가 됩니까? 전 세계 72개국까지 수백, 수천 배를 수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유능한 자, 미래 가능성 있는 인재에 투자해야 하는데, 인정, 사정, 동정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휘둘려 가치 없는 무능한 자에게 투자했다가 기업이 도산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투자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게을리 땅에 묻어놓은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 이

도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에 R&D 자금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투자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라 말씀합니다. 도적도 당하지 않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하늘의 보물, 곧 구제가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예수님의 투자방법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요, 실력 있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이요, 가난한 이웃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천국에 투자하는 비결입니다. 하늘나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생활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1, 2체육관 총 600명 분산해서 참석)

◆1부(7시)예배: 강서지역전체 + 광명,양천,오류,고척교구 참석

◆2부(10시)예배 : 강남지역 나머지교구 + 교육부 참석 ◆3부(2시)예배: 강북지역 전체 참석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1:1~13)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자여, 깨달으라

요즘 나오는 최신형 핸드폰은 그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2G 폰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나 걸고 문자나 하는 정도로 쓰는 사람 말입니다. 왜 그러냐? 기능을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기능을 다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정보도 입수하고, 사진과 영상 편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세계 어느 언어든 번역도 하고... 핸드폰 하나로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남도 불붙일 수 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하나님이 우리 손에 천상천하에 가장 좋은 것을 쥐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게 뭐야? 이게 뭐람?’ 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긴 어느 폐가에 가 보니 조선시대 김홍도의 그림이 벽지 대신 더덕더덕 벽에 붙여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18~26). ‘나 대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걱정 마라.’ 하시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6:7). 왜냐?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우리의 조력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은 삼위일체이시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막9:23),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대부분 성령을 받았습니

다.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사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주장하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사용하지 못해 무용지물을 만드는 답답한 자처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저 답답할 뿐입니다.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방이든 다 열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런데 마스터키를 들고도 문을 못 열어서 이 사람 저람 찾아다니며 도와달라는 자가 있다면 어리석다 하겠지요. 성령을 받고도 축복의 방, 건강의 방, 행복의 방, 평안의 방을 열지 못하고 권력자나 지력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더욱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총회장 이초석 목사

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라”(고전12:6~11).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암을 고치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야외집회 때 비가 오면 비를 멈추고, 올림픽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태양이 작열할 때 ‘구름아, 태양을 가려라.’ 명령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 제가 어떻게 각 분야에 세상 지식이 많은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데, 여러분에

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쓰는 열쇠는 빛이 나고 구멍에 넣고 돌리면 바로 문이 열리지만, 안 쓰던 열쇠는 어찌다 쓰려고 하면 녹이 슬어서 열쇠 구멍에도 잘 들어가지도 않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안 쓰면 녹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연장이나 무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연장과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장비빨’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일 잘하는 놈은 연장 탕 안 한다.’ 했는데 요즘은 연장이 좋을 일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하긴 호미로 온종일 일하는 것보다 포클레인으로 한 번 파는 게 낫습니다. 전쟁도 예전에는 육탄전이었는데, 지금은 첨단무기전입니다. 누가 더 성능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엡6:12). 이 싸움에는 종전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최고의 무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마귀와 그 일당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놈이 바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것들을 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 물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자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도 받았습니

다. 그렇다면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지요.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행1:8). ‘권능’이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권세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요(요1:12), 능력이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능력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그냥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의 눈이 동그래지며 “성령이 뭘니까?”(행19:2)하고 되레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세례를 주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3:11)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삶의 연장이요 무기다

성령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행2:38).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합니다. 만 원과 천 원의 가치가 다르고, 4시간 기도와 1시간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다르듯, 펌프질을 오래 해야 물이 팔팔 나오듯,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모든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귀한 성령을 받고도 귀신의 밥이 되어 끌려 다닌다면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난과 저주와 병과 죄악에서 해방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5:19). 할렐루야!

위기의 징후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하겠다.” 이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한 2021년 신년사의 일부입니다.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에서는 뉴노멀, 그레이트 리셋 등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와 위기를 경고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오르내리다보니 일반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보다 더 큰 경제 붕괴의 시대가 근접한 것을 순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대규모 경제위기가 실현되기 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분위기가 고조에 이르렀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이것이 투자심리를 과열시키고 급격한 금리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시장의 붕괴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할부금융의 활성화, 그리고 주식 및 주택담보부대출이 원인이었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는 대출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즉 부채가 근원이었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발생 시 경색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3조 달러를 6년에 걸쳐 공급하였고 중국에서 저

렴한 생산원가의 상품을 공급 받으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COVID19 사태가 발생하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시중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채권매입, 지원금 확대 및 대출금 만기연장 등을 진행하도록 하여 적정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3조 달러의 유동성을 단 3개월 만에 시장에 유입 시켰는데 이 자금들이 자본 및 원자재 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리게 되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현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상황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규모가 약 1,700조, 그리고 가계부채 대비 가계소득의 수준이 190%이기 때문에 소득대비 구매력이 낮을 뿐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금리인상, 혹은 상응하는 효과는 전체 시장을 붕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한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예수님과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36년간 단 한 번도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았습니 다. 어느 때보다 그분의 결단력,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습관을 더 깊게 연마하고 적용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집사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가난한 정원사인 어느 청년은 틈만 나면 나무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했다. 그의 손길을 거친 화분들은 멋진 조각품으로 변해 갔다.

어느 날 주인이 물었다. “조각을 한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수고를 하느냐?” 청년은 대답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게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투철한 책임감에 탄복한 주인은 장학금을 주어 미술 공부를 시켜주었고, 결국 청년은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약의 기회가 찾아온다.

목사님은 늘 교훈하신다. “수동적인 자가 되지 말고, 능동적인 자가 되라.”

성실(誠實)은 정성스럽고 참됨이고, 정성(精誠)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하

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사전은 기록한다. 즉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성실인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다”(시37:3). 신앙인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자녀 된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된다. 예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라시며 하늘 양식된 성실하심의 본을 보이셨다.

새로운 한 해, 교인은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가 없는 이 시대에 목사님의 지도하에 제자와 사도적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예수종심교단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잠28:18). 김상욱 목사



:: 진리의 학당 ::

영원한 하나님의 의 (시편 119:137~144)

하나님은 의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라고 했다(시89:4).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높이시고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는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의(義)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전 단계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많고 많은 모임들이 있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예수교회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있다.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리라’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義)만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

라오시는 예수를 향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예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셨다. 예수님은 또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들 안에도 있기를 원하셨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자기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자기 기쁨을 구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충만하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

도 또한 의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이요, 과거 자신의 신분을 장사지냈고, 그러므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하셨다.

교회에 사람의 의가 나타나면 이미 망가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써 알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교회는 인자의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한다.

하나님이 창조가 있기 전 홀로 계시 때에도(유1:25) 의(義)가 함께 있었고 이를 기뻐하셨고,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후사로 세우심을 받은 아들이시라도(히1:2) 하나님의 의(義)를 위하여 자신

을 심히 낮추셨으니(빌2:6~8),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도 의의 말씀이요 생명의 의의 생명이었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여 의가 드러나게 하심이다.

인자는 의의 후사가 되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의(義)를 위한 것이니(롬1:17), 의인만이 살리라 하심이다. 하나님의 의(義)는 영원하니 의가 없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의가 드러나 생명의 말씀이다(요1:1~4). 영원한 영광의 의(義)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성령은 의를 위해 임하신 보혜사시다(롬8:26~28).

하나님의 의(義)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의의 후사들이 되자. 하나님은 의를 지키시니 자신을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하나님은 의(義)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스러움도 참으셨으니(히12:2), 이는 의(義)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義)가 드러나야 한다. 범사에 의(義)가 드러나야 한다. 평생에 하나님의 의(義)만 드러내는 삶을 살자. 박대규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두 장씩 읽습니다. 몇 주 전 읽은 부분은 이사야 38장, 39장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들자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를 대신해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리니 유언하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즉시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지요. 과거에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사 살려 달라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한 것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더해줍니다. 그가 거한 성을 앗수르 왕으로부터 보호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고,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퍼졌고,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글과 예물을 전합니다. 선물을 받은 히스기야는 기뻐서 사자들에게 궁전을 구경시켜주는데, 보물창고부터 무기고에 있는 물건까지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지요.

이를 알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언하여 왕을 질책하고 예언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당신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읽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예언이지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사야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어차피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테니, 자기만 평안하면 괜찮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움직여 생명을 연장 받은 그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병에서 고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잘 섬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능히 고칠 분이 없다는 걸 알기에, 명의를 의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에서 나온 후 그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모든 재물이 바벨론의 소유가 되고 그의 자녀가 바벨론의 신 하가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 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 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교만해져서 방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뒤돌아서서는 자기 능력으로 이룬 듯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교만을 거스르는 건 본성을 억제하는 일처럼 의지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또 헤아려야 하지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않으며 교만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사 노트를 적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요. 남들은 운이라 여기는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신은혜**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일 년 뒤나 십 년 뒤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루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보다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에 못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겨울철, 골절을 조심하자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다양한 골절 사고가 일어난다. 추위로 인해 근육은 긴장되어 있고 두꺼운 복장이 행동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짝 언 노면이나 나지막한 비탈길에서도 빈번하게 넘어진다. 일반적으로 골절을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골절은 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 인대 파열은 물론 피부 상처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질환이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노인의 골절 사고는 타 연령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고 예후가 불량해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넘어진 직후 손목이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손목, 엉덩이,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부어올라 움직이기 힘들어지며 골절이 관절로 침범할 경우 나중에 관절염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팔꿈치나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주변 관절까지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뼈가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뼈를 맞추고 깁스로 고정해 치료할 수 있지만, 골절이 심하거나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6~8주가량 손목을 고정해야 하고 굳어버린 관절을 풀어주는 재활 기간이 있어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노인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척추 골절은 심한 통증으로 오랫동안 활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침상 안정을 취해야 하므로 폐렴, 욕창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넘어질 때 대부분은 무

의식적으로 땅을 짚는다. 그러나 이렇게 손으로 땅을 짚으면 체중이 손목과 아래 팔에 실려 뼈가 쉽게 부러진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최대한 몸을 낮춰 무게 중심을 앞에 두고 주저앉아야 골절이나 뇌진탕을 막을 수 있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몸의 근력과 균형 능력을 키워야 한다. 유연성 운동과 골밀도를 높이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자. 주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외출 복장을 간편하게 하자. 복장이나 신발로 인한 사고가 잦다. 움직임에 제약이 많은 두꺼운 외투는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 신앙에세이 ::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화를 냈을까?
지나고 나면 그래도 되었을 일인데, 왜 그리 고집을 부렸을까?
지나고 나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말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왜 마음 아프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게 될까?
마치 똑같이 당해봐라 하는 것 같이 왜 자꾸 마음이 웅졸해지는 걸까?
하나님밖에는 알 수도 없는 이런 내 속마음을 몰라준다고 왜 서운해 할까?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만회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야, 아직 곁에 있어 말할 수 있어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지금 말해야지, 사랑한다고.
지나고 나서 상처가 되지 않게 어서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지나고 나서 아쉽지 않게 다시 말해야지, 고맙다고.
시간이 매정해지기 전에 눈 한 번 더 맞춰봐야지.
시간이 애석해지기 전에 손에 온기를 더 전해줘야지.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화평케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지,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해야지, 나와 씨름했던 건 그저 내 고집이었음을.
지나고 나면...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12:7).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